

30세 미만 청년층 빚 42% 급증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당 부채 7022만원... 지난해보다 303만원 늘어

우리나라 가구가 짊어진 부채는 평균 7022만원으로 1년새 303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층의 빚은 42%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21일 공동으로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7022만원으로 지난해(6719만원)보다 303만원(4.5%) 늘어났다.

다만 부채를 지닌 가구 비율은 63.2%로 지난해보다 1.4%p 하락했다. 전체 부채의 71.2%에 달하는 금융부채는 4998만원으로 1년 전보다 0.9%p 상승한 반면, 나머지 임대보증금 등 2024만원으로 0.9%p 하락했다.

금융부채 중에서는 담보대출(4056만

원)이 5.0% 증가했고, 신용대출(776만원)은 10.6% 늘었다.

청년층 부채는 압도적으로 늘었다. 30세 미만 가구의 부채는 평균 2385만원으로 지난해(1681만원)보다 41.9% 늘어 전연령대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제대로된 일자리는 찾기 어렵고, 소득은 많지 않은데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때문에 빚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30세 미만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0.4%에 불과해 전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이어 30대 가구의 부채도 6872만원으로 16.1% 늘어 연령대별 두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부채가 가장 많은 40대의 빚은 평균

8533만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8524만원)와 60세 이상(5175만원) 가구의 부채도 각각 1.8%, 2.9% 늘어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가 3.7% 늘어 평균 1억87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용근로자는 8062만원으로 5.1% 늘었고, 임시·일용근로자(2815만원)는 4.4% 증가했다.

무직자를 포함한 기타 종사 가구의 부채금액은 3776만원으로 전년 대비 6.1% 늘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소득별로 보면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부채는 평균 1억6002만원으로 전체 부채의 45.6%를 차지했다.

다만 증가율은 1.3%로 비교적 저

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하위 20~40%에 해당하는 소득 2분위의 부채는 평균 3686만원으로 점유 비중(10.2%)은 낮았으나 지난해보다 8.4% 늘어 증가폭은 가장 컸다.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인 56.5%는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금융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평균 금융부채는 8860만원으로 조사됐다. 소득은 평균 5876만원, 자산은 4억2459만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부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가구는 연령대별로는 40대 가구(70.4%)로 나타났고,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66.4%)와 자영업자(66.4%)로 조사됐다. 소득별로는 5분위 가구(70.3%)가 많았다. /뉴스시스

전주상공회의소, 연탄 나눔 기부 봉사활동 전개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21일 전주시 효자동 한사랑복지재단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나눔 기부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연탄 나눔 기부에는 이선홍 회장을 비롯한 임·의원 및 임직원, 전라북도사회공동모금회 이종성 회장, 전주연탄은행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선홍 회장은 관내 복지재단과 독거노인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웃 40세대에 전달해 달라며 연탄 1만장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고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기 기자

솔라티 글로벌 시장 '인기몰이'

현대차, 모로코 경찰청·알제리 물류 회사 등 대량 공급 계약 체결

현대자동차의 솔라티(해외명 H350)가 글로벌 판매량 5,000대 이상을 기록한 데 이어 해외 시장에서 연이은 대량 수주를 이끌어 내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돌풍이 거세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모로코 경찰청과 경찰 병력 수송용으로 쓰일 솔라티 70대 공급 계약과 함께, 알제리 물류 회사인 모로코 운송용 차량으로 사용될 솔라티 5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알제리 물류회사는 지난 6월 솔라티 20대를 구입해 현재 물류 운송 차량으로 사용 중이며, 솔라티 차량에 대한 현지 회사의 호평이 이번 대량 재구매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솔라티는 지난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 50주년 기념행사'에서 각종 정상 및 고위급 관계자 의견용 차량으로 선정되며, 고급감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두루 갖춘 프리미엄 미니버스로서 명성을 떨친 바 있다.

또한 솔라티는 주행 테스트와 품질 평가를 거친 결과 필리핀에서 카이워드 그룹(Car Award Group Inc.)이 선정한 버스부문 '2017년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솔라티는 유럽 및 국내 시장을 겨냥해 2015년 출시된 세미본넷(엔진룸이 타 임의 경상용 차량으로,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해외에서는 모델명 H350로 터키공장에서 생산돼 판매되고 있는 차량이다.

3년 여의 개발 기간을 거쳐 출시된

솔라티는 세련된 디자인에 최고 수준의 정숙성과 공간 활용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내 시장은 물론 특히 해외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세미본넷 시장은 이미 유럽 메이커들이 선점해 후발 주자들에게 불리한 시장이지만, 현대자동차는 시장 진입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량 수주를 잇달아 따내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특히 솔라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데에는 다양한 컨버전 모델 라인업을 구축해 차량 활용도를 극대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국내 시장에서 솔라티는 리무진, 캠퍼카, 어린이 버스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 한전 특수 장비를 장착한 지중 케이블 진단 차량, 대기용 총수 의견용 차량, 레저용 캠핑카로 활용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라인업으로 판매되고 있는 솔라티는 앰블린으로 특장 개조돼 조지아에 수출됐으며, 카자흐스탄 싸이를 국가대표 선수단 차량으로 기증돼 사용되고 있을뿐 아니라 페루 고위급 의견용 차량으로 판매돼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솔라티는 다양한 컨버전 라인업으로 개발 가능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차"라며 "현대차 동차의 프리미엄 미니버스를 대표하는 차량으로서 솔라티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이종복 기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롯데백화점 전주점, 다운아동 지역 센터 방문

롯데백화점 전주점 사뭇데 봉사단은 전주 덕진구에 자리한 장애 아동시설인 '다운아동 지역 센터'를 방문해 장애 아동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산타 파티'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산타 복장을 한 봉사단원들이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앞두고 아동 지역센터 어린이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캐럴과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다.

또 크리스마스 선물도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한 히트텍과 겨울철 의류인 패딩을 선물했다.

롯데백화점 사뭇데 봉사단은 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매월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나눔 행사를 꾸준히 펼치고 있다.

롯데백화점 박중구 점장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행사 가 아이들의 기억에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 나눔 행사를 지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 기자

하림, 광명 스피드서 무료 시식회 진행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의 '전국 방방곡곡 찾아가는 하림 푸드트럭'이 "오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광명 스피드서에서 무료 시식회를 진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날 광명 스피드서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이 펼쳐지는 '크리스마스 문화행사'가 열릴 예정이라 가족이나 친구끼리 방문하면 좋을 듯하다.

하림은 오는 25일 오후 3시와 5시, 두 차례에 걸쳐 '춘천식 순살 닭갈비' 총 200인분을 무료로 제공한다. 하림 푸드트럭은 광명스피드 메인 광장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자리잡을 예정이다.

다만 추운 겨울 날씨를 감안해 스피드 내부에 '하림 특별 시식존'을 마련하여 실내에서 닭갈비를 맛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림의 '춘천식 순살 닭갈비'는 엄선된 국내산 닭고기에 하림만의 특제 양념을 버무려 지역별미의 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또한 뼈를 발라내 조리가 쉽고, 먹기도 편해서 가정은 물론 야외에서도 즐기기에 좋다. 기호에 따라 '순한맛'과 '매운맛'을 선택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깜짝 선물도 마련했다. 현장에서 하림 푸드트럭 사진을 찍어 #하림, #하림푸드트럭을 포함한



해시태그와 함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에 올리면 선착순 20명에게 하림 선물세트, 하림볼 쿠폰 등을 증정하는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림 마케팅팀 정충선 차장은 "2017년 '붉은 닭의 해'를 마무리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고객 여러분께 색다른 선물을 전하고자 무료 시식회를 기획했다"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크리스마스 문화행사'에서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춘천식 닭갈비도 맛보며 특별한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복합레저 문화공간인 광명 스피드에서는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크리스마스 문화행사'가 열린다.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과자집 팝업북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마술 공연과 캐럴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진 17)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